

# 흐르다, 머물다, 사라져 가는 것...그 슬픔과 아련함

강미미 '오늘, 기쁘게도 비가 내린다'展...19일까지 주안미술관

‘자연다운 인간’·‘인간 닮은 자연’, 작은 존재들에 담긴 사유의 심상 ‘사라진 흔적’과 ‘남아 있는 감각’, 조각난 장면들이 모여 만든 풍경

강미미 작가는 농사를 지으며 작물을 대하는 삶 속에서 자연다움을 찾고, 그 자연다움에서 인간다움을 다시 꺼내본다. 작가는 농사와 작물, 동·식물, 뿌리와 허물을 관찰하며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뿌리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선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생명과 존재의 무게, 그 주변의 작은 존재들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을 들여다본다.

‘과괴, 소멸, 사라짐, 지위짐’이라는 서사적 조형언어로 자연과 인간이 맺어온 관계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9일까지 주안미술관에서 열리는 강미미 개인전 ‘오늘, 기쁘게도 비가 내린다’이다.

이번 전시는 ‘자연다운 인간’과 ‘인간 닮은 자

연’이라는 탐구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작가에게 ‘밭’은 단순한 생산의 공간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마주하며 생존과 판단이 교차하는 ‘실험실’이다. 잡초를 뽑고, 목화가 죽어버린 경험, 호미로 뿌리를 제거했던 순간이 작가에게는 죄책의 자국이었고 이 자국이 이번 작업의 출발점이 됐다.

관람객들은 이러한 소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남긴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남긴 시간적 무게를 마주하게 된다. 이는 관람자의 기억·경험을 직접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적 경험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전시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비가 내리는 순간이 남기는 감각과 잔여



‘빗물’

를 마주해본다. 비가 오기 전의 고요함, 도구의 흔적이 드러나는 중간 단계, 마지막으로 소리와 형상이 벌어지며 남는 침묵까지. ‘자연’을 떠올려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전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잡초, 매미의 허물, 나무 아래 흩어진 꽃잎, 밭 밑에 놓인 거미줄 등 인간이 흔히 ‘쓸모없다’고



‘잃어버린 바다’

판단해온 존재도 등장한다. 작가의 작업은 이들 존재가 사라지기 전까지 결코 가뺄지 않음을 담담히 드러낸다. 그 존재들은 ‘없어졌다’고 여겨질지언정 그 자리에 있었던 ‘감각’과 ‘기억’은 사라지지도, 무가치해지지도 않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존재들이 가진 의미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층위를 놓쳤는지 묻는다.



‘네 개의 눈, 한 개의 몸’

전시장은 회화와 드로잉, 설치 작업 등으로 구성됐다. 뻔뻔하게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활용해 관람객이 자신만의 속도로 여유있게 돌아보며, 공간 속 ‘사라진 흔적’과 ‘남아 있는 감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작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나쳤으며,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많은 이들에게 자기 존재를 조용히 마주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冬心’속으로 떠나는 ‘童心’ 여행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오는 19-21일 광주예술의전당

매년 겨울을 장식하는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 작품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무대에 오른다. 제142회 정기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총 4회 개최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를 원작으로, 차이코프스키 음악과 화려한 무대미가 어우러진 2막 구성의 작품이다. (사진)

올해 공연은 박경숙 예술감독의 재안무로 무대에 오른다. 고전 발레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연출을 더해 보다 세련된 무대로 구성했다. 특히 2막의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1막 ‘눈의 나라’ 장면은 안무자가 손

꼽는 하이라이트로, 치밀한 군무가 눈보라처럼 펼쳐져 공연의 몰입감을 높인다.

음악은 박승유 지휘자가 이끄는 빛고을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맡아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풍부한 선율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한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997년 초연 이후 약 7만 명이 관람한 대표 레퍼토리로, 매년 매년 행렬을 이어온 광주의 대표 크리스마스 공연이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아이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는 작품”이라며 “전통미와 세련미를 모두 담아 한층 깊어진 겨울 동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은 6세 이상 가능. /최명진 기자

## 삶의 이야기 녹여낸 깊은 울림

우서인 초대전 ‘시선을 그리다’...31일까지 하남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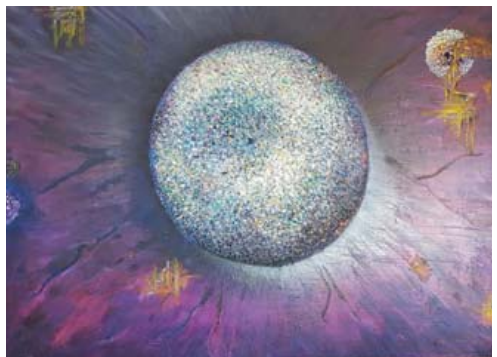
우서인 작가 초대전이 이달 말까지 하남도서관(광산구 손재로 120)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도서관 산하인 하남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시선을 그리다’를 주제로 2점 회화를 선보인다.

세포의 분얼 과정 내지는 꽃봉오리를 틔워내는 식물의 모습과 닮아있는 ‘생명 공간속으로’

시리즈를 비롯해 작가의 내면과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낸 ‘류(流) 시선’ 시리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서인 작가는 “감정적 울림을 주는 추상화 작품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며 “제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저마다의 각기 다른 의미를 찾으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



‘생명 공간속으로 III’

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아르플래닛’과 2026 행복한 동행

오는 18일까지 3기 멤버 선발...만 39세 이하 클래식 전공자 대상

광주 클래식 음악 예술단체 아르플래닛(대표 최혜지)이 2026년을 함께할 멤버를 모집한다.

아르플래닛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거나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클래식 음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3기 멤버를 선발한다. 지원 가능 분야는 피아노·관현악·성악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멤버들은 다양한 테마 공연 참여 기회와 함께 정기 회의를 통한 음악적 지식 교류,

실질적인 무대 경험 등을 지원받는다. 공연 기획과 홍보 등 실무는 전문 기획자가 전담해, 멤버들이 창작과 연주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아르플래닛은 2024년 창단 이후 빠른 속도로 성과를 쌓아온 단체다. 지난 2년간 진행된 전 공연 전석 매진, 누적 관객 2천800명 이상, 언론 보도 76건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 클래식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예술 단체로 성장했다. 총 15회의 공연 기획을 진행했으며, 클래식 음악과 시각예술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아르플래닛’ 2기 멤버 단체사진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아르플래닛 공식 블로그,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